

석사학위논문

濟州方言 數量詞 語彙 研究

지도교수 : 최규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성룡

2004년 2월

濟州方言 數量詞 語彙 研究

지도교수 : 최규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김 성 룡

김성룡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문초록>

濟州方言 數量詞 語彙 研究

김 성 룡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규 일

아직까지 제주방언 수량사는 실제 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언중들 사이에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고문헌을 찾기 위해 불가불 알아야 하지만, 제주방언 수량사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잊혀져가는 제주방언의 수량사들을 어휘론면에서 고찰하여 제주방언의 수량사 어휘 확장에 기여를 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을 살피기 위해 15여 편의 문헌 조사와 5명의 제보자를 통한 현지 조사, 그리고 60여 편의 논의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제주방언 수량사를 수사와 수관형사,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부사[양화사]로 분류하여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를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방언 수사 어휘는 ‘하나/ᄃ나[一]’에서 ‘천[千]’까지 살펴보고, 중세어휘와 대비해 보았으며, 제주방언 수관형사 어휘도 ‘ᄃ[一]’에서 ‘천[千]’까지 살펴보았으며,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의미 자질에 따라 ‘면적, 무게, 분량, 수효, 시간, 기타’ 범주로 나누어 의미와 쓰임을 살펴보았으며, 수량부사[양화사]는 의미 자질에 따라 ‘분량, 정도, 시간, 수효’ 범주로 나누어 의미와 쓰임을 살펴보았다.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을 살펴본 결과, 제주방언 수사나 수관형사는 다른 어휘에 비

하여 고유성이 오래 유지되고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는 중세어휘와 대비해 본 결과 이제까지 밝혀진 중세어휘의 수사와 수관형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미 자질에 따른 분류도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은 아직까지 의미 자질에 따른 분류가 미흡하며, 제주방언에서 ‘하영, 쪼꼼, 흐꼼’ 따위 어휘들을 수량부사[양화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어휘들의 품사 처리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도량형 제정으로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사용함으로써 맛깔스러운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잊혀져가는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을 하루 빨리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함께 오랜 언어 습관을 담고 있기에, 서구적 사고와 생활양식의 지대한 영향으로 과학화나 산업화·지식 정보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에 필요한 서구어만을 사용하려 함은 옳지 않다. 특히 제주방언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제주도민의 삶과 생활 방식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의 본질을 잘 구명하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4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선행 연구	3
II. 제주방언 수사와 수관형사 어휘	5
1. 수사	5
2. 수관형사	12
III.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21
1. 면적	22
2. 무게	25
3. 분량	28
4. 수효	33
5. 시간	36
6. 기타	45
IV. 제주방언 수량 부사[양화사] 어휘	47
1. 분량	47
2. 정도	50
3. 시간	52
4. 수효	54
V. 결 론	56
참 고 문 헌	58
<Abstract>	61

〈표〉 차 례

<표 1> 제주방언 수사 어휘	12
<표 2> 제주방언 수관형사 어휘	20
<표 3> 표준어에서 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	22
<표 4> ‘흔 말지기’ 발 면적(坪)	24
<표 5>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25
<표 6>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27
<표 7> ‘되약새기’ 어원	28
<표 8> 제주방언 ‘층이’ 어휘	31
<표 9>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32
<표 10> ‘바리’의 쓰임과 수효	33
<표 11> 제주방언 ‘족(足)’에 관한 어휘	34
<표 12>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36
<표 13> 十二干支에 따른 사람 명칭 어휘	37
<표 14> 마소(牛馬)연령 (마쉬 나이)의 명칭 어휘	38
<표 15>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	39
<표 16> 제주방언 날짜/일수(日數) 어휘	42
<표 17> 경남방언 날짜/일수(日數) 어휘	42
<표 18> 물이름(潮水名) 어휘	43
<표 19>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44
<표 20>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46
<표 21>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50
<표 22> ‘정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52
<표 23>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54
<표 24>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55

I. 서론

1. 연구 목적

수량사는 언어 생활이 단순하였던 고대 사회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수량을 정확하게 헤아릴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수량사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현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수효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인류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밟는다.

제주도에서는 자립명사들을 수사와 함께 씌으로써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량 단위어를 어떤 명사의 수량을 표시하는 말로 삼아 그 명사의 뒤에 놓기도 하며, 수량부사 [양화사]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들의 사용과 용법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지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도량형 어휘의 주가 되는 척관법 계측 어휘와 부수적인 수량 어휘로 일상생활에서 수량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보면 서구 생활양식의 전래로 기술과 물품의 수입을 타고 「야아드법」이나 「파운드법」에 따른 수량 어휘들이 수입되었다. 특히 요즈음은 서구어 교육의 강조와 첨단 과학이나 기술 진흥 정책에 따라서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된 전문적인 수량 어휘들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행정 당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터법의 정착을 위해서 계량법까지 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상생활에서 수량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수량의 정확성뿐 아니라, 언어생활에서의 명확성과 감각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수량사의 명확한 이해

와 사용은 문자 생활뿐 아니라, 언어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의 생활 습성에 익어온 수량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서구 외래어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날로 빈번해지는 국제적 교류 속에서 경쟁하며 성장·발전해 가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 생활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나라의 계측 제도나 그에 따른 수량 어휘의 사용은 나름대로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이 있는 만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법적인 규제를 내세워 쉽사리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수량 단위로의 통일된 사용을 바란다면 좀더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수량사는 아직까지는 실제 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언중들 사이에 사용하고 있으며, 더러는 우리의 고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불 알아야 하지만, 앞으로 자칫 사멸어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잊혀져가는 제주방언의 수량사들을 어휘론면에서 고찰하여 제주방언의 수량사 어휘 확장에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한 언어의 특징을 구명하는 데에는 어휘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연구는 제주방언의 수량사를 수사와 수관형사,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부사[양화사]를 어휘론면에서 접근을 하고, 제주방언 중 특이한 형태의 수량사는 형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수량사를 정의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을 비판·선택하여 수량사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제주방언의 수량사 어휘들을 문헌 조사¹⁾와 현지 조사²⁾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제

1) 김민수 외(1992).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영돈 외(2003), 「제주설화 집성(1)」, <탐라문화 총서(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주방언의 수량사들을 어휘론과 형태론면에서 품사별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국어 수량사에 대한 연구는 어휘 측면에서보다는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한 편이다. 국어 수량사구에 대한 연구는 수사 또는 양화사들이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특이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지적은 이익섭(1973)에서인데, 수사와 분류사들은 명사의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는 위치 변이의 특성을 보여준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의 수량사구가 국어의 그 어떤 유형의 문장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대규(1977)에서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국어 수량사구문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어에서는 수량사구를 구성하는 수사·수량단위사·선행 명사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사이의 문법관계가 깨지면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심도 있는 수량사 구문에 대한 연구는 채완(1982)을 비롯하여 채완(1983)·채완(1990)과 김영희(1976)를 시작으로 김영희(1981), 그리고 김영희(1984)에 와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된 듯 싶다.

한편, 어휘 측면에서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최현배 이희승 이승녕 등에 따라서 전통문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 연구 上」, 일조각.

박성훈(1998), 「단위어 사전」, 민중서림.

박용후(1960), 「제주방언 연구」, 동원사.

윤치부(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제주대 박물관(제주방언 연구회)

진성기(1958), 「제주도 민요」, <제1집>, 희망프린트사.

_____ (1958), 「제주도 민요」, <제2집>, 중앙미술사 프린트부.

_____ (1958), 「제주도 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_____ (1968),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문화연구소.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태학사.

_____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二友.

2) 체보자 : 김규호, 남·75, 서귀포시 색달동.

양승규, 남·74,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김길호, 남·82, 남제주군 표선면 새화3리.

조재익, 남·65,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이순일, 여·62,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2리.

법의 품사 분류에서 다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달 과정은 강길운(1980)의 「수사의 발달(1)·(2)」를 비롯하여 김성규(1984)의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김광해(1998)의 「국어 수사의 발달」 등이 눈이 띄일 뿐이다.

제주방언과 관련해서는 방언 어휘자료집인 석주명(1947)·박용후(1960, 1988)·현평효(1962, 1985)를 비롯하여 제주도(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을 들 수 있다.

이승녕(1956, 1978)에서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승녕은 ①기수로, “흐나 둘 싯 닛 다섯 으섯 일곱 으덱 아홉 열 시물(수물 쭈물) 설흔”을 들고, ②관형사적 수사 연결을 들고 ‘육지어와 대차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일수(日數)로 들고는 그 가운데 ‘5일’인 ‘닷췌’와 ‘6일’인 ‘엿췌’가 15세기 육지어의 고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월수(月數)로 2월인 ‘영등똥’이 특이함을 들고 있다. 한편 ④가축의 연령 계산법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⑤일수의 계산법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⑥서수로 “처음 버금 싯췌 닛췌 다섯췌 일곱췌 으덱췌 아홉췌 열췌 시(스무)물췌”를 제시하고 있다.

김성규(1984)에서는 자료 제시에서 제주방언의 가축 연령을 이승녕의 업적에서 들고는 ‘소의 두 살’인 ‘다간’을 몽골어 *davavan*과 일치함을 지적하고 다만 몽골어 *davavan*은 ‘두 살 된 말’을 뜻하는 어휘인데 제주방언의 ‘다간’은 ‘소’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특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송상조(1996)에서는 ‘무수기’ 어휘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방언에 대한 수사와 수량사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형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II. 제주방언 수사와 수관형사 어휘

수사나 수관형사는 다른 어휘에 비하여 고유성이 오래 유지되고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수를 세는 단위인 수사와 수관형사는 수량명사 또는 수단위 의존명사와 연결되어 명사의 의미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운동화 혼 베(컬레), 집 두 거리(채), 시체 다섯 구(具)’ 등이 있다면, 수단위 의존명사 ‘베(컬레)’, ‘거리(채)’, ‘구(具)’가 각각 수관형사 ‘혼’, ‘두’, ‘다섯’과 함께 쓰여서, 결합하는 단어 ‘운동화’, ‘집’, ‘시체’의 의미를 한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 뒤에 수사가 따르며, 이들이 수량사구를 형성한다.

- 벨 하나 (별 하나)
- 나 하나 (나 하나)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는 이제까지 밝혀진 중세국어의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 중 ‘여섯’을 ‘으섯’, ‘으섯’, ‘여덟’을 ‘으답’, ‘으답’, ‘으돌’로 표기하는 형태가 다르다. 이는 훈민정음 합자해에 나오는 ‘l’에서 일어나는 ‘·’의 실현이다. 그러면 여기서 제주방언³⁾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 어휘를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1. 수사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나/하나

수사 ‘혼나/하나’가 나타나며, 하나[一]의 뜻이다.

3) 개인에 따라 ‘제주도방언, 제주방언, 제주지역어, 제주어’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주방언’이라 쓴다.

- ① 벨 흐나 공공/ 나 흐나 공공
 콩 흐나 풋 흐나/ 은지 깎지 가락지 새끼
 물가에 싣다가 청구슬 흐나 내놔 가지고
 요디 오랑 영 막사리(움막) 흐나 짓어그네
- ② 딸이나 싣건 사위 흡서/ 딸은 하나 싣건 마는
- ③ 하나 둘 셋/ 요 벨 보소

①인 경우 '명사+수사' 형태로 결합하고 있으며, ②인 경우 '명사+조사+수사' 형태로 결합하고 있고, ①처럼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③인 경우는 '수사+명사'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중세어휘로 '흐나ㅎ/흐나/흐나ㅎ'들이 나타나는데, '흐나'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둘/두울

수사 '둘/두울'이 나타나며, 둘[二]의 뜻이다.

- ① 몸뎡이 흐나에 대가리 둘 돋은 건 뺏고?
- ② 죽을 액은 흐목에 드난/ 줌 소리가 두울로 난다
- ③ 두볼 다끈 쏘주가 흐 말쑤은 뎡 모양이라.

①, ②인 경우 '명사+수사' 형태로 결합하고 있으며, ②인 경우 '두울'은 '둘'이 '두울'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 연철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③인 경우 '두볼 > 두울 > 둘'로 변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어휘로 '두울/두울/둘'들이 나타나는데, '두울/둘'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싣/싣/서ㅎ

수사 '싣/싣/서ㅎ'이 나타나며, 셋[三]의 뜻이다.

- 세당 남은 걸랑 ㄹ정 가소/ 하나 둘 싣 닛 ... 질롱 각으로 하나 남았소
- 세금은 빗츄록(빗자루) 싣 흐곡 재 혼 튀
- 그 도서관이 여러 개 하나 둘 싣해서 많이 잇는디
- 이젠 싣이 각시 둘 흐고 남즈가 거길 갖어
- 월계 진좌수 흐고 싣 항상 ㄹ치 놀았던 모양입니다.

중세어휘로 '세ㅎ/셋'들이 나타나는데, '서ㅎ'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 넷/너/닛

수사 '넷/너/닛'이 나타나며, 넷[四]의 뜻이다.

- ① 방장대 넷인다, 둘은 꺾꺾 둘은 짚으는 건 뺏고?
- ② 너인 방애지록, 혼 사름은 비질흐곡 둘은 망보는 건 뺏고?
- ③ 방장대 닛인다, 둘은 꺾꺾 둘은 짚으는 건 뺏고?

- ①, ③인 경우, '명사+수사' 형태로, 수사 '넷/닛'은 사물의 수를 헤아리는 데 쓰이며,
- ②인 경우, 수사 '너'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데 쓰인다.

중세어휘로 '네ㅎ/넷'들이 나타나는데, '넷'인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5) 다숫

수사 '다숫'이 나타나며, 다섯[五]의 뜻이다.

- 문은 다숫이나 시여도 울담으로 귀여들곡 울담으로 귀어나곡 흐는 건 뺏고?
- 이제 다 과거를 보는디 양반의 후생이 너훤가(넷인가) 다숫인가가 가지고 과거보고

중세어휘로 '다숫/다슬/다숫/다스'들이 나타나는데, '다숫'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6) 으숫/으숫

수사 '으숫/으숫'이 나타나며, 여섯[六]의 뜻이다.

- 그 아덜 으숫을 이불 속에서 다 일런 돌을 지어다가
- 산 툃이 내려오건 흐나이랑 놔두곡 으숫이랑 그대로 애를 내라.

중세어휘로 '여숫/여순/여습/여숫'들이 나타난다.

7) 일곱

수사 '일곱'이 나타나며, 일곱[七]의 뜻이다.

- 반찬도 일곱. 젓가락이 일곱하는 거난.
- 산툃 일곱이 내려오람시난 산툃이 흐나이랑 내버려뵤 으섯이랑 도랜 흐난,

중세어휘로 '닐곱/닐곱'들이 나타난다.

8) 으답/으듭/으돌

수사 '으답/으듭/으돌'이 나타나며, 여덟[八]의 뜻이다.

- 일곱 으답 아홉 열까지 셋는다
- 딸 으듭인 집에서 벤칩의(邊氏宅)에 씨집을 갖는다,
- 므쉬 으돌에 짐 시끈 거 오랑 삭삿 부려그네,

중세어휘로 '여덟/여덟/여덟/여덟'들이 나타난다.

9) 아홉/아웁

수사 '아홉/아웁'이 나타나며, 아홉[九]의 뜻이다.

- 일곱 으답 아홉 열까지 셋는다
- 쉐 아웁을 잡아멕엇어. 산모가 낳고 보니 딸이라.

중세어휘로 '아홉'이 나타나는데, '아홉'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0) 열

수사 '열'이 나타나며, 열[十]의 뜻이다.

- 그 양반이 이젠 서월 가서 대정원님을 열으답에 합격했어요.
- 췌 열을 먹어시민 지 누이보다 심이 췌 터인다.

중세어휘로 '열ㅎ'이 나타난다.

11) 수물/쭈물/식물

수사 '수물/쭈물/식물'이 나타나며, 스물[二十]의 뜻이다.

- 딸 수물 맺난 거 터앉안거 생겼주게
- 새시방은 뭐 혼 쭈물이고 새각시(색시)는 혼 열댓 술 낫는다
- 그러웨 순낭자는 거 식물낫주게.

중세어휘로 '스물ㅎ'이 나타난다.

12) 서른/설흔

수사 '서른/설흔'이 나타나며, 서른[三十]의 뜻이다.

- 수물, 서른나가니 경 햐여도 죽은어멍신디 점점 예도를 잘히고
- 이조시대에 또 그 거기에다가 사름 설흔을 데리고 여기에 피난을 왔는데,

중세어휘로 '설흔/설흔'들이 나타난다.

13) 마흔/마은

수사 '마흔/마은'이 나타나며, 마흔[四十]의 뜻이다.

- 나이 마흔에 고사릴 꺼끄는게 아니
- 나이 흔 마은엔 엔간히 조반 안 먹고 나가 가지고,

중세어휘로 '마순/마은/마은'들이 나타나는데, '마은'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4) 쉰

수사 '쉰'이 나타나며, 쉰[五十]의 뜻이다.

- 그 사람 나이가 흔 쉰은 웁 모양이라.

중세어휘로 '쉰'이 나타나는데, '쉰'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5) 예순/예췌

수사 '예순/예췌'이 나타나며, 예순[六十]의 뜻이다.

- 사람 예순은 죽여분 거주.
- 흔 예췌이 넘어사 일을 하영 흡디다.

중세어휘로 '여췌/여순'들이 나타난다.

16) 일흔/일은

수사 '일흔/일은'이 나타나며, 일흔[七十]의 뜻이다.

- 그 사람 일흔이라도 일을 하영 흔여.
- 아마 일은이 나도록 스췌(사주)가 췌서 누게 드라가질(데려가지들) 안흔여,

중세어휘로 '닐흔/닐흔'들이 나타난다.

17) 으든/여든

수사 '으든/여든'이 나타나며, 여든[八十]의 뜻이다.

- 그 사람 으든이라도 일을 하영 하여.
- 우리 씨어머님은 나이가 여든이고 영해서(이래서) 나가 엇이민(없으면) 살 지 못합니다.

중세어휘로 '여든/여든'들이 나타나는데, '여든'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8) 아흔/아은

수사 '아흔/아은'이 나타나며, 아흔[九十]의 뜻이다.

- 일은 으든 아흔 백까지 셋는다
- 우리 씨아버님은 나이가 아은이고 영해서(이래서) 나가 엇이민(없으면) 살 지 못합니다.

중세어휘로 '아흔/아흔'들이 나타나는데, '아흔'의 경우는 중세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9) 백

수사 '백'이 나타나며, 백[百]의 뜻이다.

- 일은 으든 아흔 백까지 셋는다

중세어휘로 '은'이 나타나는데, 제주방언에서는 고유어로 쓰이지 않고 있다.

20) 천

수사 '천'이 나타나며, 천[千]의 뜻이다.

◦ 쌀 섬으로 혼 천을 앓단 바천(가져다 바쳐서) 정의 군수 버슬언(벌어서) 덩기지

중세어휘로 ‘즈믄’이 나타나는데, 제주방언에서는 고유어로 쓰이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주방언 수사 어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방언 수사 어휘

숫자	제주방언 수 사	표준어 수 사	숫자	제주방언 수 사	표준어 수 사
1	흐나/하나	하나	20	수물/쑤물/식물	스물
2	둘/두울	둘	30	서른/설흔	서른
3	셋/셋/서ㅎ	셋	40	마흔/마은	마흔
4	너/넷/넷	넷	50	쑤	쑤
5	다섯/다섯	다섯	60	예순/예쑤	예순
6	으섯/으섯	여섯	70	일흔/일은	일흔
7	일곱	일곱	80	으든/여든	여든
8	으답/으답/으돌	여덟	90	아흔/아은	아흔
9	아홉/아홉	아홉	100	백	백
10	열	열	1000	천	천

2. 수관형사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관형사 어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혼

수관형사 ‘혼’이 나타나며, 하나[一]의 뜻이다.

◦ 혼 강 념영 두 강 념영/여우야 여우야 나강 놀게

- 까먹어도 훈 구덕 안까먹어도 훈 구덕 * 훈 건 뵈고?
- 느 훈 장수가 겨니 아마 중국 삼국시대 뎌 모양이여.
- 훈 번은 심심훈닉가 즈기 부하덜 모아놓고
- 침 훈 궁길(구멍을) 꼭 주니까

수관형사 ‘훈’ 뒤에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가 따르며, 다음과 같은 통합 관계를 이룬다.

- 훈 + 강, 구덕, 장수, 번, 궁기, …

2) 두

수관형사 ‘두’가 나타나며, 둘[二]의 뜻이다.

- 살레 아래 중이가/훈 마리 들어와/ 두 마리 들어와/세 마리 들어와/훈 마리 나가/ 두 마리 나가/세 마리 나가
- 넓은 바당 앞을 재여/훈 질 두 질 나아가곡/좁은 바당 쥘일 재여/훈 질 두 질 들어가민

수관형사 ‘두’ 뒤에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가 따르며, 다음과 같은 통합 관계를 이룬다.

- 두+마리, 질…

3) 훈두

수관형사 ‘훈두’가 나타나며, 표준어는 ‘한두’며 하나나 둘 가량[一~二]의 뜻이다.

- 이제 훈두 해만 시민 열댓 개 똥로구나

4) 두어

수관형사 ‘두어’가 나타나며, 표준어는 ‘두어’이며, 둘 가량[二]의 수효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죽은 어멍이 아으덜 두어 개 난 모양이라.

5) 석/석/시/서

수관형사 '석/석/시/서'이 나타나며, 셋[三]의 뜻이다.

- 앵끼 댕끼 가락줄/석 줄 너 줄 넘어가니
- 삼 월의 진진 날도/석 돌 열흘 백 일이요
- 동지 첫돌 진진 밤도/석 돌 열흘 백 일이요
- 석 돌을 해야 곡을 끄친다 해 가지고
- 살레 안에 중이가/흔 머리 들어왔다/두 머리 들어왔다/석 머리 들어왔다/살레 안에 중이가/흔 머리 나갓다/두 머리 나갓다
- 개 석 발 돌은 거. 앞 발은 하나이고 뒷발은 둘뿐인 삼족구
- 검은 암퇘이 흐를 새끼 시 번 낳는 건 뭣고?
- 경흐똥 쌀 석 말에치 밥 해 도랜(달라고) 흘 수도 없는 행펜이고,

수관형사 '석/석/시/서'는 후행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의 통합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석 + 줄, 돌
- 석 + 머리/마리
- 시 + 번
- 서 + 말

6) 닢/네

수관형사 '닉/네'가 나타나며, 넷[四]의 뜻이다.

- 젊은 댐 닢 발로 기당, 두 발로 기곡 늙으면 시 발로 기는 건 뭣고?
- 이견젠 영 안팍거리히고 저디히고 이디히고 흐는 닢거리주기
- 두 시간이엔 흐민 요새 시간은 네 시간이지

7) 서너

수관형사 '서너'가 나타나며, 표준어는 '서너'이며, 셋이나 넷[三~四]의 뜻이다.

- 제주 목스 은 사름은 서너 개 죽어 가니, 그 신하덜이

8) 다숫/댓

수관형사 ‘다숫/댓’이 나타나며, 다섯[五]의 뜻이다.

- 다숫 놨은 기여들엉 도독질 호여내곡 다숫 놨은 망브는 건 뵈고?
- 다숫 성제가 오름에 강 믈쉬 몰양 오는 건 뵈고?
- 열 사름이 모다들엉 다숫 사름을 주멩기 안에 드러믈는 건 뵈고?
- 아으가 혼 댓 슬난 아으가 어멍보고
- 그 동안은 중이 새끼 댓 개 나난 데껴 두곡

수관형사 ‘다숫/댓’은 후행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의 통합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숫 + 성제, 사름
- 댓 + 슬, 개

9) 으숫/으숫

수관형사 ‘으숫/으숫’이 나타나며, 여섯[六]의 뜻이다.

- 주난 그계 엘 으숫 겔 내어당이네 퀸(주었어).
- 우리 으숫 성제가 다 모다들엉 이 물을 주자

10) 대으숫/대으숫

수관형사 ‘대으숫/대으숫’이 나타나며, 표준어는 ‘대여섯’이며, 다섯이나 여섯 가람[五~六]의 뜻이다.

- 새끼를 혼 대으숫 개 깨왔어.
- 새 장막으로 대으숫 불을 쳤어.

11) 일곱

수관형사 '일곱'이 나타나며, 일곱[七]의 뜻이다.

- 살레 컷통이에 일곱 애비아들이 목돌아진 건 뵈고?
- 쌀밥 해 놓곡 일곱기 일곱 그릇 딱 해 놓곡.

12) 예슬곱/예실곱

수관형사 '예슬곱/예실곱'이 나타나며, 표준어는 '예닐곱'이며, 여섯이나 일곱 가량[六~七]의 뜻이다.

- 그게 애기로서 예슬곱 돌인가 뵈과라고 혼데(되었다고 하는데)
- 장막을 치고서 뵈고지를 예실곱 개를 바수와(만들어) 오라고 해서,

13) 으답/으뎡/으돌

수관형사 '으답/으뎡/으돌'이 나타나며, 여덟[八]의 뜻이다.

- 으답 성제가 드러 뎡만 흐는 건 뵈고?
- 으뎡 애비아덜 술역 도는 건 뵈고?
- 그게 애기로서 으돌 돌인가 뵈과라고 혼데(되었다고 하는데) 술지더구만(살찌더구만).

14) 일고으뎡/일고여뎡

수관형사 '일고으뎡/일고여뎡'이 나타나며, 표준어는 '일여덟'이며, 일곱이나 여덟 가량 [七~八]의 뜻이다.

- 장수 무덤을 판 게 일고으뎡 돌인가 뵈 장수라고 흐는데,
- 그자 혼 일고여뎡 발쭈 멀쩡이 모성 가단 곳질로 들어옴 시작을 흐난 뵈 그만 뵈 룡뵈룡 앞의 나산 돌아나는 거라.

15) 아홉/아홉

수관형사 '아홉/아홉'이 나타나며, 아홉[九]의 뜻이다.

- 아홉 시 밤 아홉 시 돼난 저 숲으로
- 버금 유태를 7지니 아홉 머리7지 잡아 먹이고 열 머리 채우질 못했어.

16) 열

수관형사 '열'이 나타나며, 열[十]의 뜻이다.

- 낮인 열 냥 밤인 닷 냥인 건 뵈고
- 그놈의 점잖이 돈이 열 냥이라.

17) 으남은

수관형사 '으남은'이 나타나며, 표준어는 '여남은'이며, 열 가량으로부터 열 좀 더 되는 어림수 [十餘]의 뜻이다.

- 으남은 개 몰아간 후젠 거 염려 잇을 게 잇수과?
- 종늬덜이 혼 으남은 돌양 살곡
- 므쉬 으남은 므리 출리고 혼연에 가면서 보니까니,

18) 열댓

수관형사 '열댓'이 나타나며, 열다섯[十五]의 뜻이다.

- 이제 혼두 해만 시민 열댓 개 뵈로구나
- 혼 번 글 읽으래 열댓 술 난 다니단 보난 저 설드럭제가 잇는다,

19) 스무/수무/쭈무

수관형사 '스무/수무/쭈무'이 나타나며, 스무[二十]의 뜻이다.

- 피 스문 말을 당팻당장이 공짜로 정 왔다는 거주.
- 혼 서른 개 수문 개 성혼 거 있어
- 그놈이 쑤문 말지기를 해지기 전에 다 갈아 불었어.

20) 설남은

수관형사 '설남은'이 나타나며, 설남은[三十餘]의 뜻이다.

- 아무 설남은 개 주난 걸머졌어

21) 서른/설흔

수관형사 '서른/설흔'이 나타나며, 서른[三十]의 뜻이다.

- 보리 마치(보리 타작)를 서른 사롭인가 혀서 보리 마치질을 흔디,
- 거기에서 살면 그 근방에 물 설흔 마리를 키우더라고 그럽디다.

22) 마흔/마은

수관형사 '마흔/마은'이 나타나며, 마흔[四十]의 뜻이다.

- 돈이 마흔 냥만 이서시민(있었으면) 안 굴아점직후다마는 뚝 굴아점직후다.
- 혼 마은 명을 옥에 하옥을 시켜가지고 아, 뒷날은 죽일 날이라.

23) 쉰

수관형사 '쉰'이 나타나며, 쉰[五十]의 뜻이다.

- 우리 씨어머님은 쉰 술이고, 우리 씨아버님은 예순 술이고,

24) 예순/예쉰

수관형사 '예순/예쉰'이 나타나며, 예순[六十]의 뜻이다.

- 우리 씨어머님은 쉰 술이고, 우리 씨아버님은 예순 술이고,
- 집 흔 거리예(채예) 서리 흔 예쉰 개 듭니다.

25) 일흔/일은

수관형사 '일흔/일은'이 나타나며, 일흔[七十]의 뜻이다.

- 피 말지기 불린 흐는 게 금년도 흔 일흔 바리 흐니까,
- 쌀 일은 섬은 어서 시켜 온 값 흘 것이고,

26) 으든/여든

수관형사 '으든/여든'이 나타나며, 여든[八十]의 뜻이다.

- 엽전 으든 냥을 선생이 주니 이걸 깊어지고 목포(木浦)로 들어갔다.
- 보리 뭐 여든 바리엔 흐던가, 아흔 바리엔 흐던가

27) 아흔/아은

수관형사 '아흔/아은'이 나타나며, 아흔[九十]의 뜻이다.

- 보리 뭐 여든 바리엔 흐던가, 아흔 바리엔 흐던가
- 아은 아홉 골은 저 구구곡(九九谷)이라고,

28) 백

수관형사 '백'이 나타나며, 백[百]의 뜻이다.

- 공중에 이렇게 들으민 백 근 화살을 갖고 있더니만,
- 두말떼기민 지금은 백 명은 먹주גיע.

29) 천

수관형사 '천'이 나타나며, 천[千]의 뜻이다.

- 논 밭이 멧 천 평 잇는 디 잇어요.
- 그 용 전설은 천 년이나 뻗어.

위에서 살펴본 제주방언 수관형사 어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제주방언 수관형사 어휘

숫자	제주방언 수관형사	표준어 수관형사	숫자	제주방언 수관형사	표준어 수관형사
1	흔	한	10	열	열
2	두	두	10+a	으남은	여남은
1, 2	흔두	한두	15	열댓	열다섯
2	두어	두어	20	스무/수무/쭈무	스물
3	석/씩/시/서	세	30	서른/설흔	서른
4	늑/네	네	30+a	설남은	설남은
3, 4	서너	서너	40	마흔/마은	마흔
5	다섯/댓	다섯	50	쉰	쉰
6	으섯/으섯	여섯	60	예순/예선	예순
5, 6	대으섯/대으섯	대여섯	70	일흔/일은	일흔
7	일곱	일곱	80	으든/여든	여든
6, 7	예슬곱/예실곱	예닐곱	90	아흔/아은	아흔
8	으답/으답/으돌	여덟	100	백	백
7, 8	일고으답/일고여답	일여덟	1000	천	천
9	아홉/아홉	아홉			

Ⅲ.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명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주방언의 ‘흔 근, 두 되, …’ 따위에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명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과 ‘되’는 현대 일상 생활에서는 한정된 쓰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고기, 딸기, 고추, 고사리, … 흔 근

* 쌀, * 냉장고, * 빵, … 흔 근

② 쌀, 소금, 콩, (곡식류), … 흔 되

* 파, * 책상, * 무, … 흔 되

①과 ②에서 보듯이 수단위 의존명사 ‘근’, ‘되’는 ‘고기 흔 근, 딸기 흔 근…’으로는 쓰이지만 ‘쌀 흔 근, 냉장고 흔 근…’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쌀 흔 되, 소금 흔 되…’는 쓰이지만 ‘파 흔 되, 무 흔 되…’는 쓰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분명히 결합하는 명사를 가리어 잡는다.

그리고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반드시 수관형사 뒤에 따르며, 이들이 수량사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쟁이 흔 머리/마리 (쥐 한 마리)
- 마농 세 접(마늘 세 접)
- 사름 흔 명(사람 한 명)

또한 ‘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가 수량사구를 형성하여 명사를 수식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③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 쌀 흔 툄, 수박 흔 통, …

④ 수관형사+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의+명사⁴⁾

4) 이 문형은 구어체에서는 그다지 자연스럽게 않은 표현이다. 채완(1983: 32-33)에서는 ‘제목’에 많이

◦ 혼 마리의 새, 혼 잔의 술,...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들을 의미 자질에 따라 '면적, 무게, 분량, 수효, 시간,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면적

'면적'에 대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들은 대부분 논이나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인다. 또한 서양의 단위처럼 절대적인 측정정보다는 쌀 섬이나 되 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측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는 서로 간에 일정의 수리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 계층 구조가 완전한가 아닌가에 따라 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와 불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로 나뉜다.

표준어에서는 완전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10진법 수리 구조가 대표적이다.

<표 3> 표준어에서 완전 계층 구조 단위어

1	2	3	4
1) 작 →	홉 →	되 →	말
2) 되지기 →	마지기 →	섬지기	
3) 푼 →	돈 →	냥	
4) 단 →	정		

위 <표 3>의 1), 2), 3), 4)는 오른 쪽 화살표 방향으로 1단계 나아갈 때마다 10진법으로 확대되는 완전 계층 구조의 단위어들이다. 엄격한 10진법의 계층구조로 체계화⁵⁾되어 있고, 1)의 경우는 '말(斗)'의 상위계층으로 '가마니'나 '섬(石)'을 둘 수도 있을 만큼 그 계층구조가 복잡하다. 4)의 경우는 계층 구조가 단순하다. 계층 구조가 단순한가 복잡한

쓰이는 전형적인 문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서양의 미터법은 모두가 10진법에 기초하고 있다.

가 하는 것은 그 단위어의 사용 빈도와 관계가 깊다. 경제 규모의 확대로 더 큰 계량 단위를 필요로 했을 때는 더 높은 계층의 단위어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 새로운 단어의 개발은 불필요하고 기왕의 단위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위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어에서는 완전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10진법 수리 구조로 되어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1)과 2)인 경우 불완전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10작(勺)이 1홉이 되며, 4홉이 소두(小斗) 1되, 10홉이 대승(大升) 1되이며, 대승(大升) 4되와 소승(小升) 10되가 소두(小斗) 1말이다. 오히려 '홉(合)'에서 '말(斗)'까지는 대승(大升)이나, 소승(小升)이나에 따라 4진법 수리 구조와 10진법 수리 구조를 이루고 있다.

2)인 경우는 밭의 질(質)에 따라 씨를 부어낼 수 있는 양(量)이 다르기 때문에 '흔 되지기', '흔 말지기', '흔 섬지기'에 따른 밭이나 논 의 면적, 즉 '팽/평(坪)' 수가 제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위어는 '흔 말지기'로, 면적은 100평, 150평, 300평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돼지기, 말지기/마지기, 섬지기, 팽/평(坪)' 등이 있다.

1) 돼지기

'돼지기'는 표준어로 '되지기'이며, 논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별씨 1되로 모를 부어낼 수 있는 논 의 넓이 또는 씨 1되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이른다.

'돼(升)'를 표준어로 '되(升)'라 하며, 제주도에서는 4홉(合)이 소승(小升) '1되(升)', 10홉이 대승(大升) '1되(升)'이다.

2) 말지기/마지기

'말지기/마지기'는 표준어로 '마지기'이며, 별씨 1말(斗)로 모를 부어 낼 수 있는 논 의 넓이 또는 씨 1말을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하나 치로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육지에서는 '열 되지기'가 '한 마지기'이며, 각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논은 150평 또는 300평, 밭은 100평 정도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형상 대부분 밭으로 주로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제주도에서 ‘흔 말지기’하면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 씨 ‘흔 말’을 부어낼 수 있는 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였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소승(小升) 10되 또는 대승(大升) 4되가 소두(小斗) 1말에 해당된다.

◦그놈이 쭈무 말지기를 해지기 전에 다 갈아 불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밭의 질(質)에 따라 씨를 부어낼 수 있는 양(量)이 다르기 때문에 ‘흔 말지기’는 지역에 따라 <표 4>와 같이 그 면적(坪)이 다르다.

<표 4> ‘흔 말지기’ 밭 면적(坪)

수관형사+수량명사	의미	지역	면적(坪)
흔 말지기	보리 씨 ‘1말’을 부어낼 수 있는 밭의 넓이	한림, 광지	100평
		성산, 표선, 남원	150평
		애월	300평

3) 섬지기

‘섬지기’는 논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한 섬지기는 벌써 1섬으로 모를 부어낼 수 있는 논밭의 넓이 또는 씨 1섬을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이른다. 섬지기는 마지기(斗落只)의 10배에 해당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또는 대두(大斗) 6말이 1섬에 해당된다.

4) 팽/평(坪)

‘팽/평(坪)’은 표준어로 ‘평(坪)’이며, 논, 밭, 임야, 대지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평은 3.3㎡에 해당된다. 촌평(寸坪)이라고도 한다.

면적을 헤아리는 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밭의 면적을 헤아릴 때 ‘m’ 대신 ‘팽/평(坪)’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① 그 밧이 혼 이천 꿩 됩니다.
- ② 논밭이 멧 천 꿩 잇는 디 잇어요.

위에서 살펴본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 표 5>와 같다.

<표 5> '면적'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 · 수단위 의존명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면적	뒤지기	되지기	볍씨, 보리씨 따위 '1되(升)'를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말지기/마지기	마지기(斗落)	볍씨, 보리씨 따위 '1말(斗)'을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섬지기	섬지기	볍씨, 보리씨 따위 '1섬(石)'을 부어낼 수 있는 논, 밭의 넓이
	꿩/꿩	꿩(坪)	논, 밭, 임야, 대지의 면적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2. 무게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냥, 근(斤), 관(貫), 측/칭(稱)' 등이 있다.

1) 냥(兩)

'냥'은 수관형사 밑에 쓰이어 돈 또는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냥은 1돈[錢]의 10배에 해당된다.

- 천금상이라면 돈 천 냥이지. 그 때 돈 천 냥이 뒤며는 요새 멧 억은 넘지.
- 그놈의 점잖이 돈이 열 냥이라. 아이고 서른 냥 7전 가니, 열 냥을 주어 불었어.
- 그 때 돈 열 냥이민 지금 혼 백만원만이 갈 거라.

수단위 의존명사 '냥'은 주로 금이나 은의 중량을 잴 때 쓰이는데, 이는 금이나 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재산 목록의 하나였으므로 다른 보석(호박, 자수정... 등)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특정한 수단위 의존명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2) 근(斤)

'근(斤)'은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단위. 중국 한(漢)나라 때의 1근은 222.72g, 당(唐)나라 때에는 한나라 때의 3배(倍)였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해졌다. 1근은 현재 161돈중으로, 1902년 도량형(度量衡)의 개혁에 의하여 16냥(兩)을 1근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貫)의 보조단위(補助單位)로써 1근은 0.16관으로 600g에 해당된다. 근을 달아 파는 고기, 딸기, 포도, 새우 따위에 쓰인다.

- 그까짓거게 돛케기 멧 근 먹는거 문제라?
- 공중에 이렇게 들으민 백 근 화살을 갖고 잇더니만,

3) 관(貫)

'관(貫)'은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단위의 한 가지이며, 1관은 3.75kg에 해당된다. 1964년 1월 이후부터는 계량법 개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관(貫)으로 달아 파는 굴, 고구마, 감자, 양파, 당근 따위에 쓰이는데, 지금은 대부분 상자를 이용하고 있다.

수단위 의존명사 '근, 관'은 아래 ①, ②와 같이, 유동 물질을 지시하는 명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근, 관'으로 달아서 파는 물건들에만 한정적으로 결합한다.

- ① 우유 혼 근
- ② 기름 혼 관
쌀 혼 관

4) 측/칭(稱)

‘측/칭(稱)’은 표준어로 ‘칭(稱)’이라고 하며, 질량을 나타내는 尺貫法의 한 단위이다.

제주도에서 ‘1측’은 아래 ②, ③에 해당되는 100근이며, 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무게를 달아 팔 때 쓰인다.

① 1칭은 15 근에 해당된다.

十五斤爲稱 <事類博解, 上, 人事, 財寶>

② 1측은 100 근에 해당된다.

鑪鐵一稱(百斤), 價錢一百兩.

豆錫一稱(百斤), 價良二十二兩.

常鐵一稱(百斤), 價良三十兩.

熟銅一稱(百斤), 價良二十六兩七錢七分.

尺銅一稱(百斤), 價良十八兩半. <度支準折, 銅鐵>

③ 말하자면 무꼭이라 하면, 다 혼 측 이상 아닙니까. 백 근 이상이니 그것들을 혼 착 손으로 심어 가지고 앓아 던지고 던지고 하니까,

위에서 살펴본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무게’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무게	냥	냥	돈 또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1냥은 1돈(錢)의10배
	근	근	근을 달아 파는 고기, 딸기, 포도, 새우 따위에 쓰임. 1근은 600g
	관	관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단위. 1관은 3.75kg
	측/칭(稱)	칭(稱)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돼지고기나 소고기 무게를 달아 팔 때 쓰임. 1측은 100근

3. 분량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홉(合), 되약새기, 되(升), 말(斗), 섬(石), 가맹이, 충이/추니/춘, (罇), 말치, 적’ 등이 있다.

1) 홉(合)

‘홉(合)’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1홉은 작(勺)의 10배이며, 되(升)의 10분의1 또는 말(斗)의 100분의 1에 해당된다. 홉(合)으로 되어 파는 쌀, 콩, 밤, 소금, 보리 따위에 쓰인다. 제주도에서 1홉은 10작(勺)에 해당된다.

2) 되약새기⁶⁾

‘되약새기’ 4홉(合) 들이 ‘되(升)’로써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제주도 북부에서는 ‘되약’이라 하고, 남부에서는 ‘되약새기/되약새기/되약새기’라고 한다.

특히 旌義方面(성산, 표선, 남원)에서는 ‘짐작’, 大靜方面(중문, 안덕, 대정)에서는 ‘짐자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되약새기’는 馬來語에서 유래되었다⁷⁾고 한다.

<표 7> ‘되약새기’ 어원

제주방언	馬來語	표준어
되약새기/되약새기/되약새기	세기(segi ; 角)	되(升)

6) 石宙明(1968),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보진재.

7) 石宙明(1968), 앞의 책.

여기서 말하는 馬來語란 것은 南洋全體의 諸民族이 널리 使用하는 共通語요, 東은 필리핀(Philippine) 群島의 南部 민다나오(Mindanao)島의 일부에서부터 西는 아프리카(Africa) 東岸의 마다카스카르(Madagascar)島까지, 南은 뉴우기니아(New Guinea)及 뉴우칼레도니아(New Caledonia) 群島의 일부에서부터 北은 海南島의 일부까지에 걸치는 廣地域에서 사용되는 公同어라 할 수 있다.

3) 되(升)

‘되(升)’는 ‘승(升)’의 뜻으로,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표준어로는 되(升)이다. 육지에서 1되(升)는 1말(斗)의 10분의 1 또는 1홉(合)의 10배에 해당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4홉이 소승(小升) ‘1되(升)’이며, 10홉이 대승(大升) ‘1 되(升)’이다. ‘되(升)’로 되어 파는 쌀, 콩, 밀가루, 소금, 보리 등에 주로 쓰인다.

- 세금은 빗츄록 섯 호곡 재 흔 되. 모든 백성 이것만 해 오라.
- 그자 재 흔 되 호곡 빗츄록 식 개

4) 말(斗)

‘말(斗)’은 곡식이나 물 같은 것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은 섬(石)의 10분의1 또는 되(升)의 10배에 해당된다. 말(斗)에는 구두(舊斗), 신두(新斗)가 있고, 큰 말과 작은 말이 있는데, 큰 말은 작은 말의 2배에 해당되며, 큰 말을 대두(大斗), 작은 말을 소두(小斗)라 한다. 말(斗)로 되어 파는 쌀, 콩, 밤, 소금, 보리 따위에 쓰인다.

- ① 구대두(舊大斗) = 10구대승(舊大升)
= 1/5가마니
= 1/10섬(石)
≒ 1.8ℓ
- ② 구소두(舊小斗) = 10구소승(舊小升)
= 1/10가마니
= 1/10섬(石)
≒ 9ℓ
- ③ 신두(新斗) = 10승(升)
= 1/10가마니
= 1/20섬
= 10ℓ

특히 제주도에서 소승(小升) 10되, 대승(大升) 4되가 소두(小斗) 1말에 해당된다.

- 말(斗) 7찌 너 개 카득헨
- 계난 쓸 혼 말씩 전부 가져와.

5) 섬/석(石)

‘섬/석(石)’은 주로 곡식이나 액체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의 10배에 해당된다. 섬의 10분의 1을 대두(大斗) 1말이고, 가마니의 10분의 1은 소두(小斗) 1말이다. 따라서 육지에서 1섬은 대두(大斗)로 10말이고, 소두(小斗)로 20말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대두(大斗) 6말을 1섬으로 통용되고 있다.

- ① 곡석이라도 멧 쇠 태와 달라
 쓸 혼두어 쇠 받안 왔어.
- ② 이진 곡석이 수백만 수만 석을 들이고

6) 가맹이

‘가맹이’는 표준어로 ‘가마니/가마’라고 하며, 가마니에 곡식, 소금, 비료 따위를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예전에는 소두(小斗) 10말(斗) 또는 대두(大斗) 5말을 1가마니로 하였으나, 현재는 리터되(liter 升)로 10되를 1말, 10말을 1가마니로 치고 있다.

- ① 구제(舊制) 1 가마니 = 소두(小斗) 10 말
 = 대두(大斗) 5 말
 = 소승(小升) 100 되
 = 대승(大升) 50 되
 ≒ 90 ℓ
- ② 신제(新製) 1 가마니 = 리터 말 10 말
 = 리터 되 100 되
 = 100 ℓ

제주도에서는 대두(大斗) 4말을 ‘혼 가맹이’로 하거나, 소두(小斗) 10말을 ‘혼 가맹이’로 하였다. 예전에 고구마 혼 가맹이는 10관(가맹이 포함 40kg)이다. 현재는 모든 곡식류

40kg을 ‘흔 가맹이’로 치고 있다.

③ 술 흔 가맹이 ㄴ정오라.

④ 가맹이 흐나 ㄴ정읍서

③인 경우 ‘흔 가맹이’는 ‘수관형사+수량명사’ 형태로, 여기서 ‘가맹이’는 수량명사로 볼 수 있으며, ④인 경우 ‘가맹이 흐나’는 ‘명사+수사’ 형태로, 여기서 ‘가맹이’는 명사로 볼 수 있다.

7) 충이

‘충이’는 술 따위를 담는 준(罇)으로서 둥그스름한데 위아래는 뾰뚱 밑은 얹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용기이다.

‘준(罇)’을 제주도에서는 ‘충이/추니/춘’이라고 하며, ‘1충이’는 ‘대승(大升) 10되’이다. 지역적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제주방언 ‘충이’ 어휘

수량명사	지역	의미	분량
충이	중문·대정	술 따위를 담는 그릇	‘1충이’는 ‘대승(大升) 10되’
추니	세화·조천·애월		
춘	전역		

8) 말치

‘말치’는 술의 종류로서 ‘큰 술’을 뜻하며, ‘말치’의 종류는 술에 들어가는 양(量)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웨말치/웨말뜨기 : 한 말(斗)들이 술
◦ 고소리하고 떡시린 웨말치 아니민 맞지 아니흔여.

② 무말치/두말떼기/두말뜨기/두말뜨기 : 두 말(斗)들이 술
◦ 두말떼기민 이만저만 큰 솥이 아니지게.

③ 다도테기/닷뒤테기 : 닷 되(升) 드는 크기의 술

- 밥을 먹으며는 보통 다도테기 먹었주기

9) 적

‘적’은 표준어로 ‘술’이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분량이며, ‘흔 적’은 ‘한 술’에 해당된다.

- 영 어디 강 흔 적 빌어먹다가,
- 누게 밥 흔 적, 물 흔 적 먹으랜 아니흐니까니 나가 살 수가 엇이니,

위에서 살펴본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 · 수단위 의존명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분량	홉(合)	홉(合)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되약새기/되약새기/ 되약새기/되약/짐작 /짐자기	되(升)	4홉(合)들이 되(升)
	뒤테(升)	되(升)	‘승(升)’의 뜻으로,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말(斗)	말(斗)	곡식이나 물 같은 것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특히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4되’를 ‘1말’이라고 함.
	섬/석(石)	섬/석(石)	곡식이나 액체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말(斗)의 10배. 제주도에서는 소두(小斗) 15말, 대두(大斗) 6말을 1섬으로 통용.
	가멩이	가마니/가마	가마니에 곡식, 소금 따위를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충이/추니/춘	춘(罇)	술 따위를 담은 춘(罇)으로서 등그스름한 데 위아래는 빨되 밀은 얹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음.
	말치	큰 술	술의 종류로서 ‘큰 술’을 뜻한다.
	적	술	숟가락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분량

4. 수효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뭇, 바리, 배/배, 거리/거리, 파니' 등이 있다.

1) 뭇

'뭇'은 표준어로 '단'이며, 생선, 고기 따위 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데 쓰는 말 또는 벼, 보리, 출(풀), 콩, 조 따위의 단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제주도에서 곡식인 경우 1뭇은 10중 정도에 해당된다.

◦ 누르며 놔서 지게로 기냥 보릿뭇으로 해여 가지고 이 놈을 누르며 놓고는,

2) 바리

'바리'는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명사로서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양 또는 그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한 바리는 보통 20단에서 30단 정도를 가리키며, 때로 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 만한 무게의 분량으로 볼 수 있다.

◦ 피 말지기 불런 흥는 게 금년도 흥 칠십 바리 흥니까,

제주도에서 '바리'의 수효는 아래 <표 10>과 같이 출(풀), 보리, 조, 모멸/모물(메밀) 따위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바리'의 쓰임과 수효

수량 명사	의미	쓰임	수효	지역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수(數)를 세는 데 쓰는 말.	출(풀)	40뭇	중문·대정
			30뭇	남원·조천 하귀·상가

수량 명사	의미	쓰임	수효	지역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수(數)를 세는 데 쓰는 말.	보리	20못	중문·대정
			30못	남원·조천 하귀·상가
		조	6못-잘된 조	중문·대정
			12못-안된 조	
			6못	하귀·상가
		모털/모물 (메밀)	6못	중문·대정·하귀 상가·표선·남원

3) 배/배

‘배/배’는 표준어로 ‘컬레’이며, 신, 버선, 양말 따위의 ‘한 쌍’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로 ‘량(兩, 量, 緇), 족(足)’이라고도 한다.

- 너희덜 일곱 성제라 신을 혼 배씩만 삼아주민 나가 강 아바질(아버지를) 좇아 오마
- 너희덜 신 일곱 벨 삼아주엇주마는 나는 너의 아방을 좇다가 버쳐서 그냥 오고라.
- 신 일곱 배 돈 헐도록 돌아댁겨도 그냥 오란

그러나 1950년대에 와서 양말, 고무신, 운동화 따위에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족(足)’이 쓰였음을 아래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자어의 영향으로 우리의 순수하고 맛갈스러운 ‘배/배’ 어휘가 소멸된 예로 볼 수 있다.

<표 11> 제주방언 ‘족(足)’에 관한 어휘⁸⁾

物 品	數 量	單 價	物 品	數 量	單 價
양 말	足	200圓	고무신 白(男)	"	450圓
고무신 黑(男)	"	350圓	고무신 白(女)	"	350圓
고무신 黑(女)	"	250圓	운동화	"	450圓

사전적 의미로 배(倍)는 ‘갑절’, ‘곱절’이란 뜻⁹⁾이 있는데, 제주방언의 ‘배/배’는 ‘하나’에

‘곱절/갑절’ 뜻이 포함된 ‘쌍’으로 볼 수 있다.

- 한 배/배 : 하나(一)×곱절/갑절//쌍(二) = 한 곱절/갑절// 한 쌍
- 두 배/배 : 둘(二)×곱절/갑절//쌍(二) = 두 곱절/갑절//두 쌍

4) 거리/커리

‘거리/커리’는 집이나 건물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로 표준어는 ‘채’이며, 가(架·家), 구(區), 당(幢), 동(棟), 소(所), 실(室), 우(宇), 원(院), 장(杼), 좌(坐·座), 진(進)의 뜻으로도 쓰인다.

- ① 안 거리 (안 채) 밖 거리 (바깥 채)
- 앞녘 거리 (앞 채) 우녘 거리 (뒤 채)
- 외 거리 (외 채) 흔 거리 (한 채)
- 두 거리 (두 채)

② 이건젠 영 안팎 거리하고 저디하고 이디하고 흐는 닌 거리주기
남준 지와집 열두거리릴 못 냉겨도 여준 지와집 열두거리릴 더 냉겨주

③ 화다닥⁹한 중이는 마당으로 저 안 커리하고 밖 커리 가는 도중에 도망쳐 가난
가명 밖 커리레 가 불어. 밖 커리 간 와당탕와당탕

③인 경우, ‘커리’는 ‘ㅎ곡용’이 된 어휘로 볼 수 있다.

- 안ㅎ+거리 > 안 커리
- 밖ㅎ+거리 > 밖 커리

5) 파니

‘파니’는 밭, 논들을 셀 때 또는 고지¹⁰를 셀 때 쓰는 말이다.

- 밭 멧 파니 줄 거고, 할망 정해 주겠소.

9) 김민수 외(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188쪽.

10) 여기서 ‘고지’는 ‘이랑’으로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위에서 살펴본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 · 수단위 의존명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수효	못	단	꿀, 벼, 보리, 조 따위의 ‘단’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바리	바리	소나 말의 등에 실은 짐의 양 또는 그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제주도에서는 지역, ‘못(단)’의 크기와 출(꿀) 또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 ‘한 바리’의 ‘못(단)’ 수가 ‘6못(단)~40못(단)’까지 다소 차이가 있다.
	베/배	컬레	신, 버선, 양말 따위의 ‘한 쌍’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
	거리/커리	채	집이나 건물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파니	개/이랑	논이나 밭의 수를 세거나, 고지(이랑)를 셀 때 쓰는 말.

5. 시간

시간 계열어를 이루고 있는 제주방언을 찾아보면 한자어보다 뜻 구분도 명쾌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우리에게 더욱 우리말다운 맛깔스러움을 맛보게 하며 친근감을 주고 있다.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해치, 마소(牛馬)의 나이, 돌/월(月), 날/일(日), 물이름(潮水名)’ 등이 있다.

1) 해치

제주방언에서 십이간지(十二干支)에 따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에 관한 호칭(명칭)을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十二干支에 따른 사람 명칭 어휘

간지 (干支)	제주방언	표준어	의 미
子	쥐해치/쟁이해치/중이해치	쥐띠	쥐해(子年)에 난 사람
丑	쇠해치	소띠	소해(丑年)에 난 사람
寅	범해치	범띠	범해(寅年)에 난 사람
卯	토끼해치/토끼해치	토끼띠	토끼해(卯年)에 난 사람
辰	미리해치/용해치	용띠	용해(辰年)에 난 사람
巳	배염해치	뱀띠	뱀해(巳年)에 난 사람
午	말해치	말띠	말해(午年)에 난 사람
未	정남해치/양해치/염쇄해치	양띠	양해(未年)에 난 사람
申	납해치/원숭이해치/원생이해치	잔나비띠 원숭이띠	잔나비해 · 원숭이해(申年)에 난 사람
酉	독해치	닭띠	닭해(酉年)에 난 사람
戌	개해치	개띠	개해(戌年)에 난 사람
亥	돼지해치/도새기해치	돼지띠	돼지(亥年)에 난 사람

위에서 제주방언의 十二支에 따른 사람 명칭을 보면, “쥐해치, 쇠해치, 범해치, 토끼해치, 미리해치, 배염해치, 말해치, 정남해치, 납해치, 독해치, 개해치, 돼지해치”로 말한다.[석주명 (1947:168)]

‘해치’¹¹⁾의 ‘해’는 ‘해(年)’의 뜻이요, ‘치’는 [하루치, 이틀치, 사흘치,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와 같은 접미사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띠’에 해당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해=해(年), 치=띠”로 볼 수 있다.

‘미리해치’의 ‘미리’는 중세국어 ‘미리내’, ‘미루내(龍)’에서 온 것이다.

‘정남해치’의 ‘정남’은 염소, 양(羊)에 해당하며 ‘염쇄해치’, ‘염해치’라고도 한다.

‘납해치’의 ‘납’은 ‘잔나비(申)’ 또는 ‘납 신(申)’에서 온 것으로 본다.

11) 제주방언 ‘해치’는 중세 몽골어 hiče-hiče, iče-iči-(avoir honte)와 비교가 된다. 제주 가파도 말에 ‘비치럽다(恥)’는 중세어 ‘붓그리다’, 표준어 ‘부끄럽다’와 비교할 적에 ‘비치럽다’가 古形이 아닌가 한다 [이기문(1980:463~4)]

2) 마소(牛馬) 나이

제주도에는 축산업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마소(牛馬) 나이에 대한 명칭이 다른 지역보다 세분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방언에서 마소(牛馬) 나이에 관한 명칭을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마소(牛馬)연령 (므쉬 나이)의 명칭 어휘¹²⁾

연령	표준어 마소(공통)	제주 소(牛)	제주 말(馬)
한 살	하릅	금승(쇠)	금승마
두 살	이릅	다간	이수매
세 살	사릅	사릅	삼수매
네 살	나릅	나릅	사수매
다섯 살	다습	다습	오수매
여섯 살	여습	여습	육수매
일곱 살	이릅	일곱	칠수매
여덟 살	여듭	여답	팔수매
아홉 살	아습	아홉	구수매
열 살	열릅	열	십수매

‘금승’은 한자어 ‘今生’에서 따온 말로 ‘방금 태어난’ 말(馬)과 소(牛)를 뜻한다.

‘소의 두 살’인 ‘다간’을 몽골어 daYavan과 일치하며, 다만 몽골어 daYavan은 ‘두 살 된 말’을 뜻하는 어휘인데 제주방언의 ‘다간’은 ‘소의 나이를 나타낸다.¹³⁾

3) 돌/월(月)

‘돌/월(月)’은 1년을 열둘로 나눈 것의 하나 또는 평균 30일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이다. 개월(個月)/삭(朔)/달/월(月)이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 11월을 ‘동지돌’, 12월을 ‘섯돌/선돌’, 1월을 ‘정월’로 쓰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동지돌, 섯돌/선돌’은 ‘돌’로 쓰이고, ‘정월’은 ‘월(月)’로 쓰이고 있음을

13) 김성규(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알 수 있다.

- ① 당신이 거기 **흔 돌**이고 **두 돌**이고 살다가
경^ㅎ영 **흔 돌** **두 돌** 석 **돌**이민 택일(擇日)을 **ㅎ**고
- ② 칠팔월아 무술/동지 **섯 돌** 대설
거 동지 **섯 돌**에다가 무신 **늬**의 선재가 사용^ㅎ여 있습니까?
- ③ 칠팔월아 무술/동지 **선 돌** 대설
선 **돌** 십이월 그믐에 가서 노로(노루)나 **흐**나 잡아다가 제천(祭天) **ㅎ**고 멀해 불라고
- ④ 제천이라 **흔** 건 정월 초승에 제천지내는 거고

4) 날/일(日)

날짜나 날수(日數)를 세는데 있어서 제주방언이 표준어보다 어휘가 훨씬 많이 분화(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점은 아마도 제주도는 일상 생활과 날짜/일수가 아주 밀접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¹⁴⁾

제주방언, 중세국어, 표준어에 나타난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표15>와 같다.

<표 15>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

한자어	제주방언	중세국어	표준어
一日	흐르/흐루/흐를	흐르/홀물	하루
二日	이틀	이틀/이틀	이틀
三日	사흘/사을	사을/사흘	사흘
四日	나흘/나을	나을/나흘	나흘
五日	닷췌	닷새, 닷췌	닷새
六日	엿췌	엿새, 엿췌	엿새
七日	일뵈	닐뵈	이레
八日	으드레/여드레	여드래	여드레
九日	아흐레	아흐래	아흐레
十日	열흘	열흘	열흘

14) 최규일(1998), “제주방언과 창위지역어 어휘 비교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一日(일일)’부터 ‘十日(십일)’까지 제주 방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어휘로 구분된다. ‘흐르/흐를, 이틀, 사흘/사을, 나흘/나을, 열흘’은 ‘올/올(日)’ 계열의 어휘를 이루고, ‘닷새, 엿새·일웨, 으드레, 아흐레’는 ‘익/웨/에(日)’ 계열의 어휘를 이룬다.¹⁵⁾

특히 제주방언에서 날짜 이름에 관한 어휘는 그 전형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¹⁶⁾ 수관형사+수량명사 ‘올/올(日)’의 형태와 수관형사+수량명사 ‘익/웨/에(日)’의 형태가 있다.

(1) ‘올/올(日)’ 계열의 어휘

- ① 흐르/흐루/흐를 : 흘(一) + 올/올(日)
 - 못흐는디 흐르는 삭망 초흐르 보름 삭제(朔祭)를 지나는 날이라.
 - 흐루는 거 어떤 노인이 느려와서 그놈의 쟁이를 잡는 연구를 시겨 주엇덴말여 흐루 걸러 가지고 흐루 아프고 날을 걸러 가지고 아픈다는 거.
 - 결혼은 거기 강 흐를 밤 자는 거여.
흐를은 병이 똑 들었다,
- ② 이틀 : 일하(二) + 올/올(日)
 - 한 이틀 시니 이제 완전이 일어난다.
- ③ 사흘/사을 : 셋>사하(三) + 올/올(日)
 - 죽엇단 사흘만이 깨어난 산 사름이여.
- ④ 나흘/나을 : 네>나하(四) + 올/올(日)

15) 김종택(1993),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236-240쪽.

崔昌烈(1987), 『우리말 語源研究』, 一志社, 78-87쪽.

16) ‘익’는 ‘올’의 변형이고 ‘올’은 곧 ‘날(日)’임을 보여 주는 흔적이 분명히 있다. ‘하든+날(一日)’이 ‘하+올>하틀>하르’로 바뀌어 오늘날의 ‘하루’로 정착한 데서 ‘날>올(日)’의 변화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이 ‘올’이 ‘익’로 바뀐 흔적은 ‘닷사익’와 ‘나달’에서 찾을 수 있다. ‘나달’은 ‘네달+올(四五日)’로 ‘닷올’은 ‘닷사익’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올>익’로 대응되고 있음을 보이는 흔적이다. 그리고 ‘다섯’이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고 할 때의 ‘달’과 어원상 유연성을 갖는다는 의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수를 헤아릴 때 열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것은 한 손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셀 수 있다. 이 때 손가락을 꼽아 ‘다섯’을 세면 손이 닫혀서 주먹이 쥐어지고 ‘열’을 세면 손이 활짝 열려서 퍼진다. 즉 손가락을 하나씩 꼬부려 손이 닫힐 만큼 세었으면 ‘다섯’이 되므로 ‘닷(五)’은 곧 ‘달(開)’에서 온 말이고, 닫혔던 손을 손가락 하나씩 퍼 가면서 다시 세어 보면 다섯 손가락을 모두 퍼서 손이 활짝 열리므로 이러한 수를 세는 손꼽는 관습으로 볼 때, ‘열(十)’은 곧 열(開)에서 온 말이라는 견해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숫이 많으난 알로 숫불 때어서 열홀이고 나홀이고 푸검시민

⑤ 열홀 : 열(十) + 올/을(日)

◦ 숫이 많으난 알로 숫불 때어서 열홀이고 나홀이고 푸검시민

(2) '익/웨/에(日)' 계열의 어휘

① 닳쉐 : 닳(五) + 익/웨(日)

◦ 이젠 닳쉐가 넘어가도 요 뱅인태가 무슨 기적을 안해여,

② 옛쉐 : 옛(六) + 익/웨(日)

◦ 옛쉐 되는 날은 난디엇이(난데없이), 시방 요 동헌에 큰 폭낭(팽나무 아래 책실(冊室)이) 잇는다,

③ 일똥 : 날/일(七) + 익/웨(日)

◦ 브름 불길 일똥만 불어

④ 으드레/여드레 : 으돌(八) + 익/에(日)

⑤ 아흐레/아으레 : 아홀(九) + 익/에(日)

'흐르/흐를'은 수관형사 '홀(一)'과 수량명사 '올/을(日)', '옛쉐'는 수관형사 '옛(六)'과 수량명사 '익/웨(日)' 이 있기 때문에 따로 수량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흐르/흐를', '옛쉐' 속에 녹아 있는 '일(日)'은 단위어가 아니라 할 지 몰라도 명사 '일(日)'이 단위어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일(日)'을 단위어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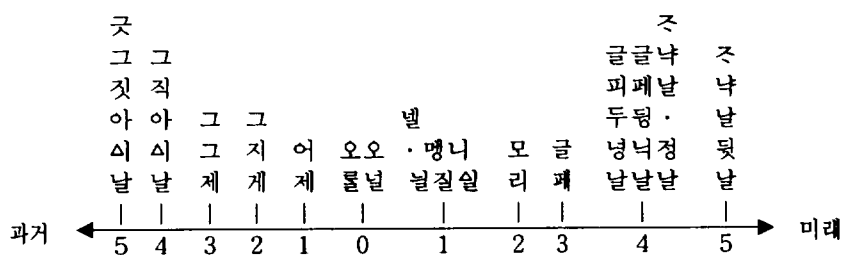
15세기에서는 날짜 이름에 관한 계열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一日(흐르, 홀룰), 二日(이톨, 이틀), 三日(사올, 사홀), 四日(나올, 나홀), 五日(닷새, 닳쇄), 六日(옛새, 옛쇄), 七日(날웨), 八日(여드레), 九日(아흐레), 十日(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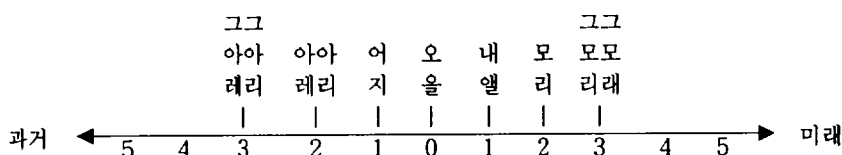
17) 이승명(1996), "한국어 수량단위 표시어군에 대한 연구", 『睡蓮語文論集』, 第24輯, 161쪽.

또한 제주방언과 경남방언을 통해 날짜/일수(日數) 계산법에 관한 명칭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6> 제주방언 날짜/일수(日數) 어휘



<표 17> 경남방언 날짜/일수(日數) 어휘



<표 16>은 제주방언에서 ‘글페’를 다른 방언에서 차용하였거나 예외적 변화로 겪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¹⁸⁾

제주방언에서는 미래 쪽의 4일째에 속하는 ‘글피(페) 두녕날’의 ‘두녕’은 ‘뒛’이며, ‘글 피땡낙날’로 적기도 한다. 그리고 ‘즈낙날’, ‘정날’로 적기도 하는데, ‘즈낙날’의 ‘즈낙’은 ‘저낙’의 뜻으로 ‘즈낙날’은 ‘저낙-날’을 의미한다.

‘내일’에 해당하는 ‘넬’, ‘닐’은 ‘내일’의 축약형이며, ‘멩질’, ‘멩일’은 한자말 ‘明日’에 대한 발음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니실’로 표기도 되는데 이는 역시 ‘來日’에 대한 제주방언형에서 표기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과거 쪽의 4일째에 속하는 ‘그직아 날’은 ‘그직아시날’로 적기도 한다. 여기서 ‘아시’는 ‘아시’系로서 ‘初, 前’의 뜻이다. [이승녕(1956)]

- 호박 사례 와수다/닐 므리 동동/식계 돌아와수다
- 호박 하나 폼서/닐 므리 돌아와수다/사흘 안네 들어수다

18) 최규일 (1998), “제주방언과 창원지역어 어휘 비교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 호박 사례 와수다/넬 모리 동동 호영 읍서/넬 모리 동동 네 모리 동동
- 우리가 아모날 아모, 넬 모리 우리가 합습시다.
- 일즈낱(어제 저녁) 떡바구리 물어간 늴으 개라
- 뒷녘날(뒷날) 결혼홀라고 막 옷덜영 막 주문호고 호엿는다.
- 겐디 그 뒷녘날로부터 날이 ㄱ무는(가무는) 거라.
- 오늘 우리 삼성제가 만나고 너 벌을 해벌(解罰)해서 우리 ㄱ찌 앓앙 놀곡,
- 아시날 밤에(전날 밤에) 결국은 그 제스가 넘엇는데,

<표 17>은 창원 지역어에서 '오늘'의 전후 명칭을 밝힌 것이다.

<표 16>, <표 17>을 통해 날짜/일수(日數) 계산법에서는 제주 방언이 경남 방언보다 어휘가 훨씬 많이 분화(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점에 관해 아마도 제주도는 일상 생활과 날짜/일수(日數)가 아주 밀접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¹⁹⁾ 제주도에겐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일수(日數)에 관한 어휘가 풍부하게 많이 존재함을 대할 수 있다.

5) 물이름(潮水名)

물이름(潮水名)²⁰⁾은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부는 육지와 일치하고 남부는 1일을 더 빠르게 계산한다.

<표 18> 물이름(潮水名) 어휘

음력 일자	물이름 (북부)	물이름 (남부)	음력 일자	물이름 (북부)	물이름 (남부)
1	으담물/으듭물	일곱물	16	으담물/으듭물	일곱물
2	아홉물/아웁물	으담물/으듭물	17	아홉물	으담물/으듭물
3	열물	아홉물	18	열물	아홉물/아웁물
4	열흔물	열물	19	열흔물	열물
5	열두물	열흔물	20	열두물	열흔물
6	막물	열두물	21	막물	열두물
7	아끈췌기	아끈췌기	22	아끈췌기	아끈췌기

19) 최규일(1988), 앞의 논문

20) 제주도(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수산과, 75-76쪽.

石宙明, 앞의 책.

음력 일자	물이름 (북부)	물이름 (남부)	음력 일자	물이름 (북부)	물이름 (남부)
8	한궤기	한궤기	23	한궤기	한궤기
9	흔물	부날	24	흔물	부날
10	두물	흔물	25	두물	흔물
11	식물/시물	두물	26	식물/시물	두물
12	네물/늑물	식물/시물	27	네물/늑물	식물/시물
13	다숫물	네물/늑물	28	다숫물	네물/늑물
14	으숫물/으숫물	다숫 물	29	으숫물/으숫물	다숫물
15	일곱물	으숫물/으숫물	30	일곱물	으숫물/으숫물

앞의 '날짜/일수에 관한 어휘'와 '물이름(潮水名)에 관한 어휘'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날짜/일수에 관한 어휘가 아주 細分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數理에 관한 어휘가 세분화되어 어휘가 풍부한 것은 농업과 어업을 主業으로 하며 살아가는 제주인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게 아닌가 한다. 그 점에서 탐라인(제주인)이 왜 머리가 좋은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¹⁾

탐라인은 수리(數理)에 관한 언어 의식이 뛰어나다. 수(數)에 관한 언어 의식이 강한 점은 숫자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숫자 기억력이 뛰어나 머리가 좋다는 것과 통할 수 있다. 탐라인은 자연 환경에 도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도전하려면 수리 의식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주방언에 수리에 관한 어휘가 세분화되어 어휘가 풍부한 것은 제주인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살펴본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시간	해치	띠	십이간지(十二干支)에 따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에 관한 호칭

21) 최규일(1998), 앞의 논문.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시간	므쉬(牛馬)나이	마소(牛馬)나이	므쉬 나이(마소 연령)에 관한 명칭
	돛/월(月)	개월/월(月)	1년을 열둘로 나눈 것의 하나이며, 평균 30일을 하나 치로 세는 데 쓰는 말
	날/일(日)	날/일(日)	날짜나 날수(日數)를 세는 데 쓰는 말
	물이름(潮水名)	물이름(潮水名)	물이름(潮水名)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6. 기타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에는 ‘꼭지, 참’ 등이 있다.

1) 꼭지

‘꼭지’는 표준어로 ‘마디’이며, 말이나 노래 곡조의 한 동가리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 ① 그 황정승 황희의 말 흔 꼭지가 중천금(重千金)이라 흔 거 있어요.
- ② 흔 말 꼭지에 나라의 운이 돌아온 거라. 황정승이 그런 사람이여
 너 벌써 비금(飛禽) 느는 생이는 지풍우(知風雨)하고 혈자(穴字)는 지우(知雨)다
흔는 그 흔 말 꼭지가 무서운 거 아니냐?

①과 같이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수량사구의 일반적인 형태이나, 제주방언에서는 ②와 같이 ‘수관형사+명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로 수량사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① ‘명사+수관형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 말 흔 꼭지
- ② ‘수관형사+명사+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 흔 말 꼭지

2) 참

‘참’은 거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수량 단위이다. 한 참은 약 5리(2km 정도)이다. 제주도

남부에서는 평평한 길인 경우 약 10리(4km 정도)를 한 참으로 본다. 몽골어 'jam'(길, 도로)과 관련이 깊다.

- 오섯 참이 돼여. 이거 넘을 거 걱정이요?
- 두어 참 댜 디를 그 영감이 걸어오란.

위에서 살펴본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명사·수단위 의존명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기타	곡지	마디	말이나 노래 곡조의 한 동가리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
	참	약 5리 (2km 정도)	거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수량 단위

IV. 제주방언 수량 부사[양화사] 어휘

수량부사[양화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인 체언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며,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한다.

또한 제주방언 수량부사[양화사]는 '명사', '명사+조사' 뒤에 따르며, 이들이 수량사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과저 흐끔 주라. (과자 조금 주라.)
- ② 오름이 하영 잇저. (오름이 많이 있다.)

①인 경우 '명사+수량부사[양화사]' 형태이며, 명사 뒤의 조사가 생략되었다. '과저'가 '과저를'로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②인 경우 '명사+조사+수량부사[양화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의미 자질에 따라 제주방언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를 '분량', '정도', '시간', '수효'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분량

사물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흐끔/흐쌀

'아주 자그만کم', '조금'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끔', '흐쌀'로 쓰인다.

- 무시거 흐끔 먹을 거 가져 오라.
- 거 콩이나 흐쌀 복가 줘서.

2) 흐꼼식/흐꼼씩/흐쌀씩/흐쌀씩

‘아주 자그만큼씩’ ‘조금’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꼼식’, ‘흐꼼씩’, ‘흐쌀씩’, ‘흐쌀씩’으로 쓰인다.

- 우리 옛날에 시계할 때 좁쌀 흐꼼식 같지.
- 밥 흐꼼씩 줘서.
- 므멸쌀 굴양으네 꺄루허영 흐쌀씩 동그라 흐게 흐영
- 나도 위신이 크꼭 흐쌀씩 무시거 줄거라.

3) 흐꼼 덜영/흐쌀 덜영

‘아주 자그만큼 덜어서’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꼼 덜영’, ‘흐쌀 덜영’으로 쓰인다.

- 밥 흐꼼 덜영 줘서.
- 쌀 흐쌀 덜영 이레(이리로) 줘서.

4) 흐꼼 족영/흐쌀 족영

‘아주 자그만큼 적게’, ‘조금 적게’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꼼 족영’, ‘흐쌀 족영’으로 쓰인다.

- 밥 흐꼼 족영 줘서.
- 돈은 야간(아똥돈) 흐쌀 족영 앗아(갓고) 간 놈도 먹영 도망척 흔디,

5) 흐꼼 더/흐쌀 더

‘아주 자그만큼 더’, ‘조금 더’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꼼 더’, ‘흐쌀 더’로 쓰인다.

- 밥 흐꼼 더 줘서.
- 돈은 흐쌀 더 해영 놈 빚져 주민 먹영 도망척,

6) 하영

옛말인 ‘하다’는 ‘많다(多)와 ‘크다(大)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중에서 ‘많다’의 의미가

제주방언에 남아 있다. 제주방언 ‘하다’는 옛말 ‘하다(多)’가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표준어는 ‘많다’로 변화였다. 즉 ‘하영’은 ‘많이’의 뜻으로 쓰인다.

- 서울에 갈 때랑 하영 담양 감서.
- 성이고 아시고 죽 고르게 평균적으로 밥을 하영 먹어

7) 흐 꼼 더 하영/흐 쓸 더 하영

‘아주 자그만큼 더 많이’, ‘조금 더 많이’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 꼼 더 하영’, ‘흐 쓸 더 하영’으로 쓰인다.

- 밥 흐 꼼 더 하영 줘서.
- 돈 흐 쓸 더 하영 버슬언(벌어서) 사난 했주,

8) 더 하영

‘더 많이’ 뜻으로 쓰인다.

- 강 보니까 그 전보다도 더 하영 싣다 이거여

9) 문 딱/문/다

‘전부’, ‘모두’의 뜻으로 쓰이며, 지역에 따라 ‘문딱’, ‘문’, ‘다’로 쓰인다.

- 지름흔 거난젠. 문 딱 먹엇어
- 그 밥 문 딱 먹어완 출을 비는디,
- 즈기 남은 건 문 으저왕 할망침의 오라불엇어
- 복숭개 흐 나를 슬작 탕으네 거기서 다 먹엇어.

위에서 살펴본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분량'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부사[양화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분량	흐끔/흐쌀	아주 자그만큼/조금	사물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흐끔식/흐끔씩/ 흐쌀씩/흐쌀씩	아주 자그만큼씩/조금씩	
	흐끔 덜엉/흐쌀 덜엉	아주 자그만큼 덜어서/ 조금 덜어서	
	흐끔 족엉/흐쌀 족엉	아주 자그만큼 적게/ 조금 적게	
	흐끔 더/흐쌀 더	아주 자그만큼 더/ 조금 더	
	하영	많이	
	흐끔 하영/흐쌀 하영	아주 자그만큼 많이/ 조금 많이	
	흐끔 더 하영/ 흐쌀 더 하영	아주 자그만큼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더 하영	더 많이	
	문딱/문/다	전부	

2. 정도

사람 또는 사물의 정도가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흐끔/흐쌀/ჴ름/ჴ름/ჴ름/조름

'아주 자그만큼', '조금', '약간'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끔', '흐쌀', 'ჴ름', 'ჴ름', 'ჴ름', '조름'으로 쓰인다.

- 아방은 본래 흐끔 모즈란 사름이니까.
- 궂을 멕여노니까 정신 출런 흐끔 살아질 거 아니짜.

- 이제 즈식을 오래간만이 늦게 흐나 봤는데 팔보쯤하게 어디 머리가 흐쓸 모자라게 낮으니
- 닢 참 질 너머 오란에 흐쓸 지치난 이젠 툇 앓안 쉬엿어.
- 이 송장 임젤 쫘 좇아 달라 흐니
- 이건 제주도 역스에 관한 거난 쫘쫘 아는 건디
- 아, 쫘쫘 멩심흐소
- 쫘쫘 의논홀 일이 잇습니다.
- 나라의서는 요사름은 쫘쫘 멀흔 사름이라
- 쫘쫘 좇아 주소
- 나도 위신이 크곡 쫘쫘 무시거 줄거라.
- 쫘쫘 일름 잇는 사름 무덤의 가민 학질은 떨어져.

2) 흐꿈 흐민/흐쓸 흐민

‘그저 약간하면’,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꿈 흐민’, ‘흐쓸 흐민’으로 쓰인다.

- 나 이제 머리 곳이 흐꿈 흐민 빠져 가지고 떨어졌다.
- 요새에 흐쓸 흐민 정이 엇인 정소냄이, 정소냄이 말을 이제도 곧주기게

3) 스뭇/스뭇

‘마음에 사무치도록 아주’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스뭇’, ‘스뭇’으로 쓰인다.

- 그놈의 지집아이가 스뭇 울면서 야단을 했던 모양이라.
- 이눔을 가서 때려죽이지 아니~~흐~~며는 이건원 스뭇 집이 망~~흐~~게 뒸웁니다.

4) 문딱/문/다

‘전부’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문딱’, ‘문’, ‘다’로 쓰인다.

- 그 즈구암 묻은 거 문딱 그 예펜덜 데려와 파서 막 데껴붙고
- 그 밧을 풀아 불곡, 문딱 재산을 정리~~흐~~연 보난 아무 것도 아이라.
- 거 땃 장난 비는 걸 어둑기 전의 문 비여봐랜 ~~흐~~다.

- 그 고향 살던 디 밧 다 풀아 불곡 혼난
- 이거 단 치우렌

5) 혼긱드로/혼긱디로/혼긱뚜르/혼긱드로

'이거 저거 구분없이', '모조리'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혼긱드로', '혼긱디로', '혼긱뚜르', '혼긱드로'로 쓰인다.

- 저거 잡아다 주난, 혼긱드로 잡아난 광광 무습게 죽여 불거든,
- 걸 또 춤 까끈 처리(줄) 몰르게 그냥 혼긱디로 헨.
- 미녕 열두 필을 혼긱뚜르 심언 빙빙 돌리멍,
- 기자 혼긱드로 자바 두드려 놓으니,

위에서 살펴본 '정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정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부사[양화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정도	흐끔/흐살/Ⴤ름/ 쫄끔/쫄름/조끔	아주 자그만큼/ 조금/약간	사람 또는 사물의 정도가 많 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흐끔흐민/흐살흐민	그저 약간하면/ 조금만 있으면	
	스뭇/스뭇	마음에 사무치도록 아주	
	뎨딱/뎨다	모두/전부	
	혼긱드로/혼긱드로/ 혼긱뚜르/혼긱디로	이거 저거 구분없이/ 모조리	

3. 시간

시간이 짧거나 긴 동안을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쫄끔/쫄끔/조끔/흐썰

‘조끔’, ‘약간’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쫄끔’, ‘쫄끔’, ‘조끔’, ‘흐썰’로 쓰인다.

- 아, 쫄끔 잇으니까
- 간 쫄끔 시니 하르방이 오랏거든께.
- 조끔 이시난 할망이
- 아, 뒤에서 무신 소리가 나. 조끔 잇단,
- 흐썰 이시니까 또 아버지 님은 아버지가 또 들어왔단 말여.

2) 흐끔만/흐썰만/쫄끔만

‘조끔만’, ‘약간만’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흐끔만’, ‘흐썰만’, ‘쫄끔만’으로 쓰인다.

- 흐끔만 이십서계.
- 흐썰만 잇이민 나가 알아 볼 도리가 있다.
- 이거 쫄끔만 일찍 와서민 머 인가(人家) 이신 덜 당도홀 건디.

3) 확/속히

‘빨리’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확’, ‘속히’라는 말로 쓰인다.

- 경흐난 이젠 곧는 대로 옷통에서 흐연 벗이 난게 진(자기는) 옷 확 벗언
- 어느 동안에 확 물 적지는 체 마는 체 흐연
- 어명이 경흐난 웨그레 속히 왔넨 물으난.

위에서 살펴본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시간'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부사[양화사]		의미 · 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시간	조끔/조끔/조끔/흐술	조금/약간	시간이 짧거나 긴 동안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
	흐꼼만/조꼼만/흐술만	조금만/약간만	
	확/속히	빨리	

4. 수효

사람 또는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는 데 쓰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영

‘많이’의 뜻으로, ‘하영’이라는 말로 제주도 전역에서 쓰인다.

- 제주도에는 돌도 하영 잇수다.
- 시깁(싱고) 올리젠 하영 하나네 하영 미시거영 하영 들 겁주게.
- 세별포엔 하영단 사름이 하도 하영 죽어가난 영주개로 고쳐주.

2) 문딱/ㄹ딱/모신탕이/문/모돈/다

‘전부’, ‘모두’, ‘다’의 뜻으로, 지역에 따라 ‘문딱’, ‘ㄹ딱’, ‘모신탕이’, ‘문’, ‘모돈’, ‘다’로 쓰인다.

- 사랑하니게 문딱 각시 돼어 불엇어
- 오랑 ㄹ딱 절흐랜. ㄹ딱 아덜을 놔 뉘
- 문을 싹 을안 하영 으름때민 모신탕이 나오는 거고
- 신 일곱 베 문 헐도록 돌아댁겨도 그냥 오란
- 이거 모돈 사름을 당신이 기술을 가져서 살리는데,
- 경해부난 하영 두 해에 다 죽어 불더라고 하영 합니다.

◦ 우리 으쓱 성체가 다 모다들영 이 물을 주자

3) 수백

‘많이’의 뜻으로, ‘수백’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쓰인다.

◦ 게 수백헌 관원덜, 거 장관급덜 맞이난

4) 족아

수효가 ‘적어’의 뜻으로, ‘족아’로 제주도 전역에서 쓰인다.

◦ 순하고 옹호는 사름이 족아

5) 천지만진디

‘아주 많은데’의 뜻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천지만진디’로 쓰인다.

◦ 종늬이 천지만진디 종늬은 무식호주게

위에서 살펴본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수효’ 범주에 속하는 수량부사[양화사] 어휘

의미 자질	수량부사[양화사]		의미·쓰임
	제주방언	표준어	
수효	하영	많이	사람 또는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
	몬딱/므딱/모신탕이/ 몬/다/모돈	모두, 전부	
	수백	가득	
	족아	적어	
	천지만진디	아주 많이	

V. 결 론

사물의 수량을 헤아리는 어휘들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함께 오랜 언어 습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서구적 사고와 생활 양식의 지대한 영향으로 과학화나 산업화·지식 정보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에 필요한 西歐語만을 사용하려 함은 옳지 않다.

특히 제주방언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제주도민의 삶과 생활방식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본질을 잘 究明하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제주방언 수량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간추려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수량사는 의미와 그 쓰임에 따라서 수사와 수관형사,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부사[양화사]로 나눌 수 있다. 수사와 수관형사, 수량부사[양화사]는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에서 살펴본 결과 사용 빈도가 높아서 거의 모든 어휘들을 다루었고,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맛깔스러운 어휘들만을 소개했다.

둘째, 제주방언의 수량사의 특징을 보면, 명사와 대명사 뒤에 수사가 따르며,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는 반드시 수관형사 뒤에 따르고, 명사를 수식한다. 수량부사[양화사]는 명사 또는 명사+조사 뒤에 따르고, 때로는 수량부사[양화사] 뒤에 명사가 따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이 수량사구를 형성한다.

셋째, 수사나 수관형사는 다른 어휘에 비하여 고유성이 오래 유지되고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는 이제까지 밝혀진 중세국어의 수사와 수관형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주방언에 나타난 수사와 수관형사 중 ‘여섯’을 ‘으섯/으섯’, ‘여덟’을 ‘으답/으덥/으돌’로 표기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

넷째, 학교문법에서 數量單位語의 품사 처리 문제와 용어 설정은 數量單位語가 반드시 수관형사 아래에 쓰이어서 사물의 수량을 헤아린다는 문장에서의 직능과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數單位 依存名詞’로 부르기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들을 그 의미 자질에 따라서 면적, 무게, 분량, 수효, 시간, 나이, 거리 등의 분포로 大別해서 살펴보았다.

다섯째, 제주방언의 수량부사[양화사]를 살펴보면,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많다(多)’와 크다(大)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중에서 ‘많다’의 의미가 제주방언에 남아 있다. 제주방언 ‘하다’는 중세국어 ‘하다(多)’가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표준어는 ‘많다’로 변화하였다.

또한 제주방언에서 ‘족다’는 표준어 ‘작다, 적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방언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은 ‘하다, 족다’에 부사형 어미 ‘-영, -게’ 따위가 결합된 어휘와 표준어 ‘조금’의 의미인 ‘흐끔’과 ‘모두’의 의미인 ‘몬딱’ 따위 어휘로 다양하다.

의미 자질에 따라 이러한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을 분량, 정도, 시간, 수효, 크기 따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여섯째,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 중, 수사와 수관형사 어휘들은 의미 자질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으나, 수량명사와 수단위 의존명사, 수량부사[양화사] 어휘들은 의미 자질에 따른 분류가 미흡하여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하영, 쪼끔, 흐끔’ 따위 어휘들을 수량부사[양화사]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어휘들의 품사 처리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대 도량형 제정(制定)으로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사용함으로써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그런데 잊혀져가는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을 하루 빨리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들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길운(1980), “수사의 발달(1)”, 『충남대논문집』 7-1, 충남대.
_____(1980), “수사의 발달(2)”, 『난정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고영진(1984),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 출판부.
- 김공칠(1999), 『탐라어 연구; 제주방언의 원류』, 한국문화사.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_____(1998), “국어 수사의 발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김광희(1993), “수량 변형 범주의 조응성 고찰”, 『국어국문학』110, 국어국문학회.
- 김민수 외(1992),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성규(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김영희(1976), “복수표지 ‘들’의 문법”, 『문법연구』 3, 탑출판사.
_____(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_____(1981), “부류 셈술말로서의 셈 가름말”, 『배달말』6, 배달말학회.
_____(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 연구 上』, 일조각.
- 김종두(2000) 『사는 게 뭇 산디』, 영주문학사.
-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90),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 노대규(1977), “한국어 수량사구의 문법[1]”, 『어문론집』(고대) 18, 고려대 출판부
_____(1988), 『국어 의미론 연구』, 국학자료원.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박성훈(1985), “單位語 研究”, 『漢文學論集』第三輯, 단국대 한문학회.
_____(1998), 『單位語 辭典』, 민중서림.

- 박용후(1960), 「제주방언 연구」, 동원사.
- _____ (1988), 「제주방언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종갑(1996), 「국어 의미론」, 박이정.
- 방학수(1985), 「才物譜에 對한 國語學的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 서정범(1996),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 _____ (1968),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 보진제.
- 송상조(1996), “방언”,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 윤치부(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 이기문(1980), “가파도방언의 특징”,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이승녕(1956, 1978),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승명(1996), “한국어 수량단위 표시어근에 대한 연구”, 「睡蓮語文論集」 제24집, 신라대.
-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9-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종은(1995), 「한국어 수분류사의 의미 분석」, 상명여대 석사논문.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전병삼(1985), 「國語의 數量單位語에 대한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 제주도(1995), 「濟州語 辭典」,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방언 연구회).
- _____ (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수산과.
- 장현주(1995), 「유아의 수량어 이해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 진성기(1958), 「제주도 민요」, <제1집>, 희망프린트사.
- _____ (1958), 「제주도 민요」, <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 _____ (1958), 「제주도 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 채 완(1982), “국어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53·54, 진단학회.
- _____ (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19-1, 서울대어학연구소.
- _____ (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70, 진단학회.
- 최규일(1998), 「제주방언과 창원지역어 어휘 비교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최창렬(1985), 「국어 통사론」, 진명문화사.

_____ (1987), 「우리말 어원 연구」, 일지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9 제주도편.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문화연구원.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태학사.

_____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二友.

<Abstract>

A Study on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Kim, Sung-ry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Kyu-il**

So far,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have been used because they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For this reason, sometimes it is necessary for us to know them in order to survey our old reference books. But the study of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have been little do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that are being forgotten in the vocabulary theory field and extend the number of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To examine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more than 15 old reference books are surveyed and the quantifiers are checked on the spot with the help of 5 reporters. And more than 60 theses are used as a basic material. By doing this,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are intended to be viewed, being classified into numerals and numeral-attributive adjectives,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numeral-quantitative adverbs.

Numerals of Jeju dialect are examined from 하나/하나(HANA/HONA) [一] to 천(THOUSAND) [千] and compared with medieval vocabulary. Numeral-attributive

adjectives are also looked over from **흔**(HON) [一] to **천**(CHEON) [千]. Numeral-quantitative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of Jeju dialect are worked out on their meaning and usage being classified into 'area, weight, quantity, number, time, etc.' category according to their meaning and quality. Numeral-quantitative adverbs are examined on their meaning and usage by being classified into 'quantity, degree, time, number' category by their meaning and quality.

Thus far,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have been inspected. As a result, numerals or numeral-attributive adjectives compared with the other vocabulary, their peculiarity is kept for long, they can be vocabulary used mostly in everyday life. Especially, numerals and numeral-attributive adjectives of Jeju dialect are compared with medieval vocabulary. Thus, they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edieval vocabulary which have been found out. It is good that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meaning and quality. Whereas, numeral nouns and numeral-unit-dependent ones, numeral-quantitative adverbs are not classified yet so well according to their meaning and quality. Vocabulary of **하영**(HAYOUNG), **조곰**(JJOGGOM), **호곰**(HOGGOM), etc. of Jeju dialect are observed by being divided into numeral-quantitative adverbs. And it was necessary for us to be thoughtful about dealing with their parts of speech of the vocabulary like these.

METER law and POUND one have been used thanks to the enactment of WEIGHTS and MEASURES. So the satisfactory quantifiers of Jeju dialect are gradually disappearing. It is necessary for us to gather the quantifiers of Jeju dialect that are being forgotten as soon as possible by means of surveying old reference books and on-the-spot research.

Vocabulary meaning number and quantity of things include long period of

linguistic habit with the unique way of life of our nation. Hence, it is not right for us to try to use only Western words which are needed for them because of pursuing scientialization, industrialization, knowledgeab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on account of much effect on Western way of thinking and life.

Most of all, vocabulary expressing number and quantity of Jeju dialect are reflecting well the way of life of people in Jeju islan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an effort to inquire and keep well the essence of quantifiers system of Jeju dialec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4.